

/ 지역 단신 /

구례교육 혁신 '교육감과의 대화'



구례교육 혁신을 위한 김장환 전남도 교육감과의 대화가 최근 구례교육청 회의실에서 전남도 교육위원회를 비롯, 관내 각급 학교장 대표, 학교운영위원 대표, 교육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화에서 김 교육감은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남 외국어 연수 프로그램 (JLP) 및 전남 영어타운 확대 운영과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믿고 신뢰하는 전남교육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도 혁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호기자 dkhim@

문화고 애니메이션학과 작품전

장성군은 아카데미하우스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25~26일 이틀동안 문향고 애니메이션학과 학생 작품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작품전은 장성 문향고 학생들 작품인 동영상플래시 20편 상영, 캐릭터(아바타, 포스터) 액자 30점, 잡지(영화)디자인 30점, 입체페라리 50점, 입체캐릭터 10점, 포토샵 10점, 카툰 10점 등 160점이 전시된다.

장성 문향고 애니메이션학과는 전남에서 유일한 애니메이션 특성화 학과로, 올해 졸업생 23명 중 20명이 도내 유수한 디자인 또는 대학 애니메이션 학과에 진학해 학생들은 물론 입시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장성=고재빈기자 jhgo@

함평 곤충화석지 생태학습장 조성

중생대 백악기 화석 100여점 발견 학교면 일대

'2008 함평나비·곤충엑스포' 연계 연차적 개발

함평군은 23일 "최근 학교면 일대에서 발견된 9천만년 전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곤충화석지가 곤충화석지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곤충화석지 발견을 세계유일의 곤충 소수 축제인 나비축제와 연계해 이 일대를 곤충화석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해 '2008함평나비·곤충엑스포'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우선 백악기 화석 개발 연구와 긴급 발굴 조사 등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구체적인 생태학습장 조성 방안을 마련해 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열리는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곤충화석지 발견

으로 나비축제와 2008 엑스포의 당위성이 입증된 셈"이라며 "생태학습장이 조성되면 옛 공룡시대의 자연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 학교면 일대에서는 중생대 백악기인 9천만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곤충·연체동물·식물화석 등 100여 점이 대량 발견돼 공룡시대의 생태환경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연자료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도자기 만들며 인내심 길러요

화순署 전·의경 체험교육

화순경찰은 지난 22일 동면 농공단지내 도자기 회사인 삼화세리미에

서 경찰서 전·의경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의경 어머니회 회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을 방문, 어머니회원 주도로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성 학양과 진로·취업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국가 환경경영 대상

담양군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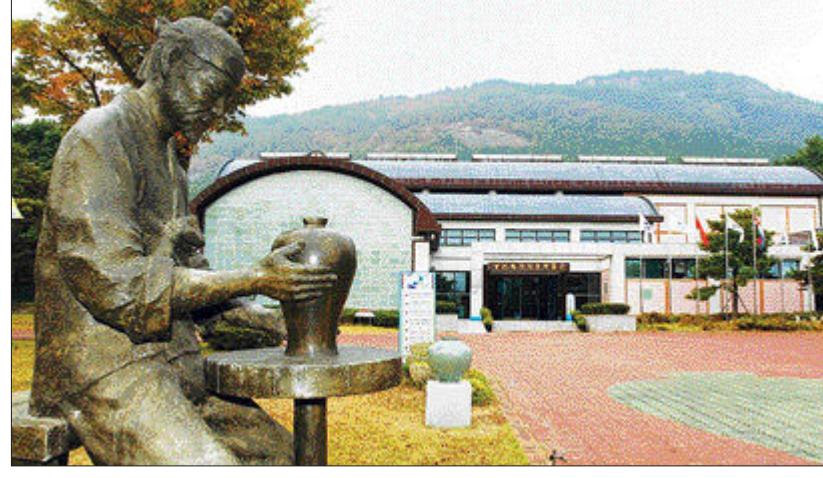
국제적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담양군이 2006 국가환경경영 대상을 수상했다.

담양군은 23일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등이 주관한 국내 최고 권위의 '2006 국가환경경영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인 '지속가능발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의 이번 수상은 지난해 환경부의 그린시티 지정과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우수사례 발표 등에 이은 것으로 국제적 생태도시로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했다는 평가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군정 책임자의 확고한 환경의식,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시스템 구축, 생태도시 정책과 관련한 주요 정책 사례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사식은 다음달 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담양=최재희기자 jhwha@



1층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된 강진 청자 박물관 전경. /송기동기자 song@

강진청자박물관 1종 전문박물관 등록

강진청자박물관이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

전남도는 23일 강진 청자도요지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고 강진 청자의 조사·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강진청자박물관'이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

이로써 도내에는 공립 3개소 전남도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나주박물관, 강진청자박물관, 대학박물관 2개소(목포대, 순천대), 사립박물관 4개소(선암사 성보박물관, 송광사 성보박물관, 대원사 티벳박물관, 도감사 성보박물관) 등 등록박물관이 모두 9개소로 늘게 됐다.

도에 따르면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시설의 규모와 학예연구사의 유무, 소장유물(박물관 자료)의 내용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종 박물관은 종합박물관과 전문

박물관으로 다시 나뉘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강진청자박물관'은 청자 유물과 유적의 전시, 수집, 조사, 연구를 담당하게 될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

전남도는 23일 강진 청자도요지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고 강진 청자의 조사·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강진청자박물관'이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

이로써 도내에는 공립 3개소 전남도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나주박물관, 강진청자박물관, 대학박물관 2개소(목

포대, 순천대), 사립박물관 4개소(선암사 성보박물관, 송광사 성보박물관, 대원사 티벳박물관, 도감사 성보박물관) 등 등록박물관이 모두 9개소로 늘게 됐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법성포 단오제 무형문화재 등록 추진"

단오보존회 오진근 회장



열려던 서해안 최대규모의 민속 행사였다.

오 회장은 "영광 글비 만들기 체험을 통

해 관광객들이 동참해 즐길 수 있고, 나아가 민속 및 제전행사를 재현해 무형문화재 등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단오제는 28일 영광 마리톤 대회를 시작으로 인의제(산신제), 당산제, 응왕제(칠산 풍어제) 등 제례 의식이 개최되며 ▲전국 드라마페스티벌 대회 ▲단오 씨름 페스티벌 대회 ▲영광 대회 등이 개최된다.

예로부터 법성포 단오제는 영광 칠산 앞바다로 산란을 위해 조기떼가 찾아드는 때에 풍어(豐漁)와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영광시립영화사랑관 홈페이지: www.joycbc.com/1566-7942

영광시립영화사랑관 홈페이지: www.joycbc.com/1566-7942